

올해 울산지부 회장으로 선출된 주화돈 회장(덕양산업 전신팀 부장)을 만나기 위해 울산으로 내려갔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한 도시이다. 서울에는 한강이 흐른다면,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다. 태화강을 따라 울산시내로 진입한 기자는 자리적으로 서울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화학제조업과 자동차제조업 소그룹 활발

울

산광역시 자료(2004년)에 의하면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32,517.5천원으로 전국 1위로, 40년간 국내에서 산업수도 역할을 해온 정도로 경제적인 자립도가 다른 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수십의 항만에서 전국으로 이어지는 넓은 도로망, 풍부한 전력과 용수, 용지가 있으며, 반경 100km 이내에 넓은 소비시장을 갖춘 최적의 기업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울산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SK가 소재해 있고, 미국의 듀폰을 비롯한 독일의 바스프, 프랑스의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일본의 아사히, NEC 등 세계 19개국 89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업은 약 1,000여 개사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부품소재전용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첨단산업과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가 중심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현황은 5인 이상의 제조업체가 1,523개 업체(종업원 132,370명)로 기계금속 603개 업체(39%), 운송장비 304개 업체(20%), 석유 18개 업체(1.2%), 화학 158개 업체(10%), 기타 제조업이 440개 업체(29%)를 차지한다.



울산의 명소인 가지산 역사풀

정보시스템 세미나 활발하게 운영

주화돈 회장과의 인터뷰 소식에 석명원 울산지부 전 회장과 김종술 총무(태영인터스트리 주임)도 시간을 내주신 덕분에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울산컴퓨터사용자협회의 역사는 1989년부터 시작됐다. 다른 지부와 비슷한 시점에서 전산실장들의 모임으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초대회장으로는 울산 주리원백화점 전산 실장이었다.

울산지부 회원사는 약 30여 개사이며, 화학제조업과 자동차부품제조업이 대부분 차지한다. 회원사들의 정보화 관련한 사항이나 세미나 테마결정 등 도움을 구하고자 울산대학교 구자록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다.

울산지부는 지난해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울산상공회의소와 울산IT포럼, 울산IT혁신사업단 등 지역 기관

왼쪽부터 울산지부 김종술 총무, 석명원 전 회장, 주화돈 현재 회장



과 공동으로 정보시스템 세미나를 분기마다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테마는 생산계획(APS)에 의한 제조설계관리방안, RFID에 의한 물류추적관리, RFID 기반의 U-SCM 구축 전략, U-City 추진전략, 울산시 지역IT산업 육성 방향, EP기반의 통합작업환경 구축사례, IT경영혁신 전략 등이다. 올해도 3월부터 분기마다 정보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지부 회원사 업종별로 화학소그룹과 자동차제조소그룹으로 나누어 업종별 IT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석명원 전 회장은 “전산 조직이 축소되고 전산인들의 활동범위가 위축되다 보니, 협회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운 점을 내비쳤다.

주화돈 회장도 “그동안 전산실장들이 바뀌고, 새로운 인력이 보충되면서 과거 인간적인 분위기가 다소 부족해졌다. IT가 생소했던 과거에는 기업에서 전산부서의 입지가 높았지만, 지금은 ERP 등으로 현업에서 전산업무를 하다 보니 전산부서는 돈만 쓰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산부서의 역할 변화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Users**

글 |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석명원 전 회장, 태광정보기술 창업

2005년 울산컴퓨터사용자협회 회장이었던 석명원 태광산업(주) 을산공장 전산팀장이 명예퇴직 후 태광정보기술을 창업했다. 사업내용은 보안솔루션(Document Security, Secure Workplace), Secure Networks, FA 시스템 등이다. 연락처 : 052-269-3942, tksmw@yahoo.co.kr